

쌀 수확 앞두고 비축미 방출... 농심 '나락'

전남 농민들, 5만톤 방출 계획에 "햅쌀값 하락" 강력 반발
정부 "원료곡 해결이 목적" ... 농민 "쌀값 정상화에 찬물"

정부가 쌀 수확기에 비축미 5만t을 시장에 방출키로 하면서 전남지역 쌀 생산농가들이 반발하고 있다. 올해 급등한 농자재 비용을 감안하면 현재 햅쌀값도 적정가가 못 미치는데, 가격 오름세가 형성되는 햅쌀 출하 시기에 비축미를 풀면 쌀값 급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당장, 올 추석 '상차림용'인 햅쌀(조생종) 출하가 다음달 초 예정인데, 전체 햅쌀의 90%에 이르는 중만생종 햅쌀도 다음달 중순부터 수확에 들어가는 등 쌀 수확이 임박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의 '비축미 풀기'는 '쌀 가격을 떨어뜨리겠다'는 신호를 줘 햅쌀 하락을 부추길 수 있다는 게 농민들 사이에서 터져나오는 불안감이다.

전남도도 농민 불안감을 감안, 정부 비축미 방출이 2023년산 쌀 수확기 햅쌀 형성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21일 전남도와 전국농민회총연맹 등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시장에서 원료곡이 부족하다는 농협·민간 RPC 등의 요구에 따라 2022년산 공공비축미 5만 t을 방출키로 하고, 수요 파악을 거쳐 다음달 22일까지 인도하겠다는 방침이다. 전남지역 42개 RPC 등이 요구한 물량만 1만 3000 t에 이른다.

정부는 지난해 2022년산 공공비축미(45만 t) 외에 42만 t (2022년산 32만 t + 2021년산 10만 t)을 추가로 사들여 격리하는 등 대규모 시장 격리가 이뤄지면서 햅쌀 수확기를 앞두고 원료곡이 부족해 농협·민간 RPC 등의 비축미 방출 요구가 잇따랐다는 입장이다.

다만, 정부는 9월 말까지 판매하지 못할 경우 해당 RPC 등에 남은 물량을 전부 회수하고, 향후 정부 양곡 판매 대상에서 1년 간 제외하겠다는 조건을 전제로 공급키로 했다. 업계에서는 수확기 햅쌀 형성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겠다는 의도를 반영한 조치로 해석하고 있다.

농민단체 등은 그러나 패널티 조항을 불렀더라도, 정부의 '쌀 풀기'는 쌀 가격 오름세를 막겠다는 강한 '시그널'을 줘 햅쌀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지난 8월 15일 산지쌀값은 80kg 기준 19만 4364원(20kg 기준 4만 8591원). 올 들어 가장 높은 가격으로, 평년가격(80kg 기준 18만 8175원·

최근 5년중 최저년도와 최고년도 가격을 제외한 3년간 평균가격)보다 3.2% 높은 상태다.

80kg 기준 쌀값은 지난 1월 18만 339원(20kg 4만 5085원)→2월 17만 9611원(20kg 4만 4433원)→3월 17만 8907원(20kg 4만 4727원)→4월 17만 7730원(20kg 4만 4433원)까지 내림세를 보이다, 5월 17만 8345원(20kg 4만 4586원)→6월 18만 1884원(20kg 4만 5471원)→7월 18만 6106원(20kg 4만 6526원) 등 오름세다.

농업계에서는 이달 말 조생종벼 수확이 시작되고 다음달 초부터 추석 '상차림용'인 햅쌀 출하가 본격화되는 시기가 햅쌀값 오름세도 당분간 유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가 비축해둔 쌀을 풀면 햅쌀에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는 게 농민들 우려다. 농민단체 쪽에서는 정부의 올 수확기 산지 햅쌀 목표가격(80kg 20만원)을 유지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전국농민회 광주전남연맹은 "부족한 원료곡 문제는 이번 주부터 본격 수확하는 조생종벼를 통해 해결할 수 있다"면서 "정부 발표는 조금씩 정상화되는 햅쌀 오름세를 막으려는 속내를 드러낸 것으로, 현장 나락 값 형성에 찬물을 끼얹고 있는 만큼 수확기 정부곡 방출계획을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쌀값 오름세를 걱정하는 정부와 달리, 농민들은 아직 '쌀값 정상화'가 멀었다는 입장이다.

차량 유류대·인건비·비료값 등을 포함한 쌀 생산비를 감안하면 한 공기(100g)에 250원 수준인 현재 햅쌀은 지나치게 낮다는 것이다. 농민들은 최소한 밥 한 공기 300원, 1kg 3000원으로 계산해 80kg 기준 24만원 정도로 형성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전남도도 최소 22만원 이상에서 햅쌀이 형성될 수 있도록 정책적 건의를 하고 있다.

박형태 전남도의회 의원은 "원료곡 부족 문제는 수확기 햅쌀 형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농협과 민간 RPC별로 상황을 고려해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바람직하다"면서 "이번 조치는 햅쌀이 오르면 정부가 비축미를 방출해 오름세를 막겠다는 시그널을 줄 수밖에 없고 가격이나 제값을 받지 못하고 있는 햅쌀 형성에 도움이 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정부가 올해 쌀 수확기를 앞두고 최근 비축미 5만 t을 방출하기로 하면서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 산지 햅쌀값 하락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21일 오후 광주시 서구 서창 들녘에 추석 '상차림용'으로 불리는 햅쌀(조생종)이 황금빛으로 익어가고 있다. /나명주 기자 mjna@kwangju.co.kr

무등산 정상
9월 말부터 상시 개방
방공포대 업무 57년 만에

군부대 주둔으로 출입이 통제됐던 무등산 정상 이 다음 달 말부터 상시 개방될 것으로 보인다. 21일 광주시에 따르면 다음 달 23일 무등산 정상 상시 개방을 기념하는 행사가 열릴 예정이다.

광주시는 무등산 정상에 주둔중인 공군, 무등산 국립공원 사무소와 주변 보행 데크 설치 등 막바지 공사를 진행 중이다. 개방되는 구간은 서석대에서 정상부 인왕봉까지 왕복 780m 코스다. 인왕봉에는 데크형 전망대를 설치해 많은 탐방객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광주시내를 조망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상시 개방은 1966년 12월 20일 무등산 정상에서 방공포대가 업무를 개시한 지 57년 만이다. 그동안 해발 고도 1187m 천자·인왕봉 등 3개 봉우리를 통칭하는 무등산 정상부는 연중 1~2차례 개방 행사 때 말고는 출입이 통제됐다. 천왕봉과 지왕봉은 군부대가 이전한 뒤에 개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광주시는 지난해 9월 국방부, 국립공원관리공단과 현장 합동 토의에서 방공포대 이전 계획을 마련하고 이전에 앞서 무등산 정상 상시 개방을 추진하기로 했다.

광주시 관계자는 "방공포대 이전과 관련해서는 선행 연구용역 등을 거쳐 후보지를 선정하고 2025년까지 실시설계를 마쳐 이전, 훼손지 복원 등에 들어가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준비도 계획도 없이 여는 5·18 청문회 ▶6면

굿모닝 예향 - 나만의 휴 찾아 떠나보자 ▶18·19면



블렌 표정에 웃고 우는 KIA ▶22면

'명절 농축산물 선물' 20만→30만원 상향

권익위, 김영란법 시행령 개정

국민권익위원회가 공직자 등이 주고받을 수 있는 설·추석 농수산물·농수산물가공품 선물 가격 상한을 기존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농·축·수산물로 교환할 수 있는 온라인 상품권(기프트콘)과 영화·연극·스포츠 등 문화관광상품권도 선물 가능한 상품에 포함된다.

이상기온과 집중호우, 고물가, 수요 급감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축·수산업계와 문화예술계를 지원한다는 취지다.

권익위는 21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전원위원회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김영란법) 시행령 개정안을 참석 위원 11명 만장일치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공직자 등이 직무 관련자와 주고받을 수 있는 농축산물 가격을 기존 10만원에서 15만원으로 올리는 것이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이다. 이 경우 평상시 선물 가액의 2배로 설정된 '명절 선물' 가액 상한은 현재의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올

라간다. 이처럼 2배가 가능한 명절 선물 가능 기간은 '설·추석 전 24일부터 설·추석 후 5일까지'다.

권익위는 아울러 김영란법 적용 대상인 선물 범위(최대 5만원)에 온라인·모바일 상품권과 영화, 연극, 공연, 스포츠 등 문화관광권을 포함하기로 했다.

하지만 현금화할 수 있어 사실상 금전과 유사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백화점상품권 등 금액 상품권은 포함되지 않는다. /연합뉴스

사랑과 감사의 69년
믿음과 소망으로 100년
[1954~2023]
기독교영문대학교
광신대학교
www.kwangshin.ac.kr



The new EQE SUV

누구도 예상 못한 아우라

Mercedes-Benz



신성자동차

광주 전시장 062)226-0001 & 확장 서비스센터 062)376-2556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 1041(화정동)
광주 수원 전시장 062)716-5001 & 광주 민중중고차 전시장 062)945-0007 & 수원 서비스 센터 BP 062)942-7200 / GR 062)961-0090
광주광역시 광안구 임방울대로 565(도림동)

정부 공인 표준 연비 및 등급
·EQE 350 4MATIC SUV 복합 에너지 소비효율(전기/km/kWh) : 3.9(도상: 4, 고속도로: 3.7) 1회 충전거리(km) : 404, 공차중량(kg) : 2540, 배터리 용량(kWh) : 88.4
·EQE 500 4MATIC SUV 복합 에너지 소비효율(전기/km/kWh) : 3.8(도상: 3.9, 고속도로: 3.6) 1회 충전거리(km) : 401, 공차중량(kg) : 2510, 배터리 용량(kWh) : 88.8
※ 본 연비는 표준모드에 의한 연비로서 도로 상태, 운전 방법, 차량 적재 및 정비 상태 등에 따라 실제 운행 연비와 차이가 있습니다.
※ 상기 제모 이미지는 실제와 다를 수 있으며, 사양 및 구성에 따라 상이할 수 있습니다.